혁신·전통·공공…우리는 건축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건축 오디세이

이중원 지음

시카고는 물의 도시다. 비록 1871년 대화재가 일어났지만 1893년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화재라는 화마를 딛고 도시의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대니얼 버덤이라는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의 공로가 있었다.

버덤은 박람회장에서 미시간 호수와 기존의 석호를 다듬어 다양한 물길을 만들었다. 수변을 따라 조경과 보도를 조성했으며 섬에는 숲을 가꾸었다. 그는 수변은 공공재라는 확고한 철학을 견지했다. 수변을 따라 보행 정원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때문이었다. 물길을 따라 "땅의 위계를 부여했고 공공건축"을 건립한 배경이다. '코트 오브 아더' 주변에 박람회 주요 앵커시설을 배치했으며 "남쪽의 뱃길(낭만)과 북쪽 철길(현실)은 대중교통 체계로" 중심부와 연계했다.

이중원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수변도시는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상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80%가 산악이다. 그만큼 하천이 많다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하천은 우리 주거 양식의 근간을 이룬다.

이 교수의 저서 '건축 오디세이'는 건축으로 바라본 세상을 이야기한다. '다가가는 건축, 질문하는 건축'의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보다 건축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2021년 대한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건축으로 본 보스턴 이야기', '초고층 도시 맨해튼'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동아일보'에 연재한 칼럼을 모은 결과물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보행보다 주행을 우선했다. 그 결과 수변에 공원 대신 고속도로를 건립했다. 한강을 비롯해 탄천, 중랑천, 안양천, 영종도 해변 수변에는 어김없이 고속도로가 있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췄는데도 도시와 하천 사이에 "고속도로라는 담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저자는 물가, 다시 말해 수변은 공공재라고 강조한다. 이는 세계적 추세가 보행 중심의 공원이지 주행중심이 아니라는 사실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저자는 미래의 건축의 방향은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혁신은 세 가지 질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류 공동의 번영, 도시 경제의 번영 외에도 그것이 미래에 도달 가능한 목표인지의 여부와 직결된다.

도시는 그곳에서 살았던 구성원들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한다. 영광의 시간도 고통과 치욕의 시간도 스며 있다. 그 가운데 전통은 '자칫 돈에 의해 타락할 수 있는 문화'를 바로 잡아주는 요인이다. 나아가 기술 중심주의로 경도될 수 있는 건축적 편향을 막아주기도 한다.

저자는 2019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경주의 옥산서원, 그 중에서 독락당을 예로 든다. 옥산서원이 회재 이언적의 제자들이 세운 반면 독락당은 회재가 생전에 지은 건축물이다. 어린시절 부친의 죽음, 40대 때 관직 박탈, 50대 때 유배는 그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게 했다.

독락당은 산수가 돋보이는데 절정 공간인 계정과 바위가 패여 물웅덩이를 형성한 모습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또한 세 곳의 담장은 독락당을 돋보이게 하는 주요 공간이다. 마당을 구획하는 선인 흙담은 독락당을 '길을 품은 집'의 효과를 발한다.

저자가 설명하는 키워드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혁신'이다. 스탠퍼드 대학 실리콘 밸리와 MIT 켄들 스퀘어는 혁신을 키워드로 가늠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준다. 전자는 IT(정보통신 기술) 허브이고 후자는 BT(생명공학 기술) 허브다. 하나의 전자상거래기업 또는 다수의 첨단 기업이 새로운 도시를 그리고 있고 이와 맞물려 새로운 건축을 선보이고 있다. 혁신이 우리 도시 건축의 미래이기도 하다.

아울러 도시에 있어 '흐름'의 요인도 중요한 부분이다. 도시의 세 갈래 흐름은 교통, 돈(시장), 정보(뉴스)다. 수로무역 시대에는 페리 터미널이, 철로무역 시절에는 기차역이, 항로무역 시절에는 공항이 교통 허브로 작용했다. 이곳에선 시장이 서고 돈이 돌고 사람이 모인다. 저자는 시애틀 예슬러 웨이를 '흐르는 길, 기억하는 건축'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이제 우리는 개인과 공공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비록 그런 곳은 유토피아처럼 이 땅에 절대 존재하지 않기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일지라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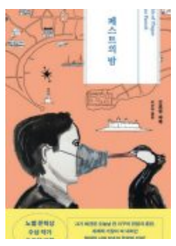
〈사람의무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보행 중심의 공원이 펼쳐져 있는 시카코강 수변의 모습. 〈사람의무늬 제공〉

페스트의 밤

오르한 파묵 지음, 이난아 옮김



여기 한 섬이 있다. 분홍색을 띠는 하얀 돌 때문에 멀리서도 빛이 난다. 여행서에서는 시적으로 묘사된 마법적인 풍경을 지닌 평화로운 섬이다. 이곳은 이슬람교와 그리스 정교회가 비슷한 비율로 나뉘어 있다.

200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은 터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가다.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꾸준히 소설을 발표하고 있으며 문학성과 흥행성을 담보한 작가로 평가된다. 이번에 100년 전의 상황을 소설로 그린 '페스트의 밤'은 오늘의 팬데믹 상황과 비교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오랫동안 전염병을 소재로 한 소설을 구상했으며 최근 5년여에 걸쳐 작품에 매진했다. 공교롭게도 작품이 완성이 될 무렵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어느 인터뷰에서 파묵이 "이스탄불에서 처음 코로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마치 내 소설 속 이야기 같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견상 평화로워 보이는 섬에 어느 날 배가 도착한다. 절대적 통치자의 유람선 아지지예에서 두 사람이 내리는데, 저명한 화학자 본코프스키 파샤와 그의 조수다. 파샤는 오스만 제국의 큰 항구 이즈미르에서 페스트의 유행을 6주 만에 종식시킨 유능한 방역 전문가다. 그는 정통기독교인으로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압뒬하미트 2세에 의해 파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방역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거리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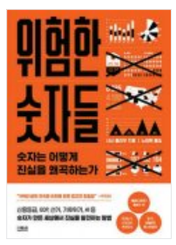
소설에는 방역을 강행하려는 정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슬람 대 정통 기독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질병의 확산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들이 펼쳐진다.

〈민음사·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위험한 숫자들

사너 블라우 지음, 노태복 옮김



우리 삶과 떼레야 뗄 수 없는 가운데 하나가 숫자다. 모든 것이 숫자로 표시되고 숫자로 통용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당시, 사전 여론조사가 결과와 달랐다. 어떤 언론사는 자신들이 지지하고 호감을 가졌던 후보의 당선을 확신했다.

이 같은 양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숫자에 민감하고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숫자를 모티브로 발간된 '위험한 숫자들'은 수많은 경고에도 사람들이 틀리는 이유에 주목한다. 크라우드펀딩 저널리즘의 시초인 '코레스폰던트'의 수학 전문기자 사너 블라우가 집필했다.

책는 '텔레그래프', '뉴사이언트' 올해의 책에 '타임스'오 '가디언' 추천도서에 선정됐다. 제목이 암시하듯 책은 수의 함정을 경고하는 한편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한다.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지도 들여다본다. 일상 가운데 삶을 결정하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신용점수다. 이것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설령 발급돼도 가용 한도가 낮다.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돼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신용점수가 좋은 사람은 정말 성실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GDP가 높은 국가가 선진국이며 수능등급이 온전히 그 학생의 미래까지 평가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수가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현실을 근사해낼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의미 있다고 해서 모두 셀 수는 없으며 셀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의미 있지는 않다"고 한 뜻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 퀘스트·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연이 만든 세계

션 B. 캐럴 지음, 장호연 옮김

만약 소행성 충돌이 없었다면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1억년 넘게 지구를 지배해왔던 공룡이 외계에서 '우연히' 날아온 소행성 때문에 사라졌다. 소행성이 30분만 일찍 왔어도 대륙이 아닌 대서양에 떨어졌고, 30분 늦었다면 태평양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됐다면 공룡의 대멸종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다른 형태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구의 주인은 여전히 공룡이고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얘기만 들어보면 인류가 지구를 차지하게 된건 정말 우연이다.

'이보디보', '진화론 상택'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션B. 캐럴 위스콘신대학 교수가 '우연'을 주제로 한 독특한 관점의 과학책 '우연이 만든 세계'를 출간했다. 저자는 지질학 생물학 등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우리를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 '우연'에 대해 놀랍고도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책은 또 우연에서 비롯한 '실수'들이 어떻게 전염병과 가뭄, 문명을 뒤바꾼 격변을 초래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바탕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저자는 책 말미에 알베르 카뮈와 자크 모노와 같은 학자와 리키 저베이스, 세스 맥팔레인과 같은 유명인사들을 등장시켜 우연에 관한 가상대화를 만들었다.

이 대화에서 저자는 리키 저베이스의 입을 빌려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운이 좋았을 뿐. 삶은 휴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145억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80년, 90년을 살면 다시는 존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삶을 최대한 즐기세요"라고 말한다.

〈코쿤북스·1만65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첩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

질환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역 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062)720-2000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90816-중-38891호